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3, Vol. 19, No. 2, 179～202.

주거 유동성, 독립성의 가치 및 독특성 선호 간의 관계

박 혜 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전 지구적으로 주거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주거 유동성의 심리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과 심리적 독립성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거 이동 경험에 따라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 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연구 1)와 독특성에 대한 선호도(연구 2)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주거 이동을 빈번하게 경험하였던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타인에 비하여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은 더 중요하게, 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은 덜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하며, 독특성을 더욱 강하게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주거 유동성과 심리적 독립성의 관계에서 영향의 방향에 관하여 가지는 함의를 논하고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주거 유동성, 가치, 실제 자기 중요도,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독특성 선호

† 교신저자 : 박혜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36-74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Tel : 02-920-7303, E-mail : hpark@sungshin.ac.kr

전 지구적으로 주거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들의 수가 1990년의 약 1억 5천 6백만 명에서 2010년에는 약 2억 1천 4백만 명(추산)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09). 국내에서도 인구이동률이 급증하였던 1975년(1974년의 15.3%에서 1975년에 25.5%로 증가)을 시작으로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인구이동률이 꾸준히 20% 안팎을 기록한 바 있다(통계청). 이처럼 주거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개인들의 일상생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주거 유동성(residential mobility)이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심리학 내에서 이에 관한 학문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Oishi, 2010).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거주지 이전 등과 같은 지리적 이동이 심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 맥락에서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이 심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지리적 이동 효과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지리적 이동과 심리적 독립성

지리적 이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일찍이 동아프리카의 네 부족들을 비교하였던 문화인류학자 Edgerton (1971)은, 정착 생활을 하는 농경민들에 비하여 빈번한 이동을 하는 목축민들이 보다 독립적임을 관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농경민들에 비하여 목축민들은 다른 사람들과 덜 상의하며 더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등의 독립적인 행동 양식을 보였다. 그리고 독립성, 자기통제 및 용맹성과 같은 가치들을 목축민들에 비하여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Edgerton, 1965). Goldschmidt(1971)는 목축민들의 행동 양식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독립성이 목축민들의 개인적 특질일 뿐만 아니라 목축민 사회 체계의 특징이기도 하며, 독립성은 목축 경제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목축민 사회의 상황들은 독립성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평하였다. 요컨대, 위의 민족지 연구는 지리적인 이동이 개인의 독립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체계를 바꿈으로써 집단 수준의 독립성 역시 촉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생각을 이어받아, 최근 일군의 심리학자들은 지리적인 이동이 개인의 자기 개념, 사회 행동, 사회관계 및 문화의 변화 등에 끼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주거 유동성에 관한 최근의 심리학 연구들은 거주지 이동이 먼저 개인 수준에서 어떠한 단기적인 결과와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개인의 이사 경험이 가져오는 효과는, 지역이나 집단 수준의 특성들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파악하기 어렵다(Oishi & Talhelm, 2012). 구체적으로, 주거 이동에 대한 생각은 흥분, 불안 및 외로움 예상과 같은 즉각적인 심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직업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은 한 지역에 머물게 될 상황에 대하여 글을 쓰도록 하였을 때나 전형적인 하루에 대하여 글을 쓰도록 했을 때에 비하여, 직업 때문에 한 해 걸러 한 번씩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글을 쓰도록 하였을 때 연구참가자들은

불안과 관련된 단어들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Oishi, Miao, Koo, Kisling, & Ratliff, 2012). 다른 연구는 주거 이동이 개인들의 사회 행동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은 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라는 요청을 받았던 연구참가자들은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이나 전형적인 하루에 대하여 생각해보라는 요청을 받았던 연구참가자들에 비하여 자신이 미래에 가지게 될 친구의 수가 적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더 나아가, 주거 이동이 잦은 생활에 대하여 생각하였던 연구참가자들은 주거 이동으로 인해 예상되는 외로움 때문에 사회관계망을 보다 확장하고자 하는 동기를 보였다(Oishi, Kesebir, Miao, Talhelm, Endo, Uchida, et al., 2013). 또한, Lun, Oishi와 Tenney(2012)는 주거 유동성이 사람들의 대인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즉, 이들의 연구에 참여하였던 대학생들 가운데 성장 과정에서 빈번하게 이사를 다녔던 사람들일수록 타인에게 평등주의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즉, 친구와 낯선 이에게 모두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을 충성스럽게 도움을 주는 사람(즉, 낯선 이를 제외한 친구에게만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에 비하여 더 선호하였다.

이처럼 주거 이동이 즉각적인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줌을 보인 것과 더불어, 최근의 연구들은 주거 이동이 개인 수준에서 장기적인 결과 또한 가져온다는 것을 밝혔다. 일례로, Oishi, Lun과 Sherman(2007)은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년기의 주거 이동이 성인기의 자기 개념 및 행복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주거 이동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주거 이동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성격이나 능력, 기술 등과 같은 개인적 자기(personal self) 측면을 중심으로 자신을 정의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주거 이동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시 상대방이 자신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역할, 상황 등과 같은 집단적 자기(collective self) 측면을 정확하게 알아주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반면, 주거 이동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시 상대방이 자신의 개인적 자기 측면을 정확하게 알아주었을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에서만 보고된 것이 아니었다. 한 독일 대학에서 행해졌던 연구에서, 사회경제적인 수준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대학 진학을 위하여 다른 주에서 건너온 학생들이, 해당 대학이 소재한 주 출신의 학생들에 비하여 심리적으로 보다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evincer, Park, & Kitayama, 2009).

다른 한편으로, Oishi, Rothman, Snyder, Su, Zehm과 Hertel 등(2007)은 주거 안정성(residential stability)이 상호의존성을 고양시킨다는 것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미국 미네소타 주 내에서 주거지 이동이 잦은 곳의 주민들에 비하여 주거지 이동이 잦지 않는 곳의 주민들이, 상당한 추가 비용에도 불구하고 주의 환경 보호를 위한 “보존 서식지(critical habitat)” 자동차 번호판을 더 빈번하게 구입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또한, 미국 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은 도시보다 주거 이동이 잦지 않은 도시에서 홈팀의 성적이 야구 홈경기 관람률에 영향을 덜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즉, 주거 이동이 잦지 않은 도시의 시민들은 홈팀이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을 때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을 때만큼 홈경기를 관람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와 무조건

적으로 동일시(unconditional identification)하는 경향이 강해짐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Oishi, Rothman 등은 실험 연구에서 공동체의 안정성을 조변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이 낮은 공동체에서보다 높은 공동체에서 상호의존적인 도움 행동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개인이 가진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은 주거 안정성이 도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 요컨대, 위의 연구 결과들은 주거 유동성과 안정성이 자기 개념 및 사회 행동에서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을 각각 고양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리적인 이동과 그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이 문화의 형성이나 유지, 혹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 역시 지리적인 이동이 독립성을 고양시킬 것이라는 가설과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발적 정착 가설(voluntary settlement hypothesis)'은 변경(frontier) 지역에 자발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집단 수준에서 독립적 기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제안한다(Kitayama & Bowman, 2009; Kitayama, Conway, Pietromonaco, Park, & Plaut, 2010; Kitayama, Ishii, Imada, Takemura, & Ramaswamy, 2006; Kitayama, Park, Sevincer, Karasawa, & Uskul, 2009). 만약 그렇다면, 자발적 이주와 정착의 역사를 가진 북미인들은 서유럽인들에 비하여 보다 높은 독립성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예상과 일관되게,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의 대학생들을 비교하였던 연구(Kitayama et al., 2009)에서 미국인들은 서유럽인들에 비하여, 그리고 서유럽인들은 일본인들에 비하여 암묵적인 독립 성향(implicit psychological tendencies toward independence)을 더 강하게 보인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위에서 개관한 연구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주거 유동성 수준이 높으며 개인이 자신만의 개성과 독특성을 보유하고 표현하는 것을 장려하는 개인주의 문화 배경에서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들만을 기초로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 맥락에서도 지리적 이동으로 인하여 독립성이 고양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섣부른 일일 수 있다. 집단주의적인 문화 배경에서는 오히려, 지리적 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섞여들기 위하여 집단의 가치에 동조하고 평범함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수행되었던 일련의 연구들은 집단주의적인 문화 배경에서도 지리적 이동이 심리적 독립성 강화와 연관될 가능성을 지지한다. 일례로, 미국이나 서유럽과는 문화적 배경이 다르며 사회 전반적으로 주거 유동성 수준이 낮은 일본에서도 도시 전반의 주거 유동성은 홈팀이 승리하고 있을 때에만 응원하는 조건부적인 동일시(conditional identification)와, 주거 안정성은 홈팀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일시와 각각 관련됨이 반복 검증되었다(Oishi, Ishii, & Lun, 2009). 또한, Kitayama와 동료들(2006)은 자발적 정착이 단일 요인으로서 독립성을 촉진하는 데 충분한다면, 독립성 강화에 반드시 서양 철학이나 종교 등 개인주의적 문화 배경이 전제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일관되게, Kitayama 등(2006)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정착이 시작되었던 일본 북부 홋카이도의 거주민들이 일본 본토 거주민들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독립적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제로 일부 독립성 측정치에서 홋카이도 일본인들은 미국인들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강한 독립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건대, 한국 문화 맥락에서도 개인의 주거 이동은 독립성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에서 수행되었던 선행 연구들은 집단 수준의 주거 유동성, 혹은 지리적 이동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여전히 개인의 지리적 이동 경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필요는 남아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적 문화 맥락에서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이 높은 심리적 독립성으로 이어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지리적 이동 효과의 문화적 보편성, 혹은 특수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을 심리적 독립성의 두 가지 표지 효과(marker effect)인 (1)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 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및 (2) 독특성에 대한 선호도와 함께 분석하였다.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 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와 독립성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는 주어진 가치를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이며, 가치의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는 해당 가치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믿는 정도이다(Fischer, 2006; Rohan, 2000; Wan, Chiu, Peng, & Tam, 2007; Wan, Chiu, Tam, Lee, Lau, & Peng, 2007). 그런데 선행 연구들은 어떠한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지닌 가치들을 종합한 것(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이 그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의 집단에게 중요할 것이라고 지각하는 가치들(가치의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과 일치하지 않음을 보였다(Fischer, 2006; Terracciano, Abdel-Khalek, Adam, Adamovova, Ahn, Ahn, et al., 2005; Wan, Chiu, Tam, et al., 2007). 즉,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 혹은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녔을 것으로 지각하는 성격이나 가치가 실제로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성격이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수의 무지(pluralistic ignorance)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집단구성원들은 집단 내에 널리 퍼져있는 가치나 태도 등에 관하여 종종 실제와는 다르게 지각한다고 한다(e.g., Prentice & Miller, 1993). 그런데 이러한 오지각은 집단 내에 전통적인 관점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고 믿는 방향으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다. 즉, 어떠한 집단이나 사회에 대하여 그 집단, 혹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바는, 시간의 흐름과 사회적 조건들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Zou, Tam, Morris, Lee, Lau, & Chiu, 2009). 예를 들어, 본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한 선행 연구(Hirai, 1999)에서, 일본인들이 스스로는 집단주의 가치보다 개인주의 가치를 지녔으나 다른 일본인들은 집단주의적인 가치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프런티어와 목축경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남부에 명예의 문화(culture of honor; Nisbett & Cohen, 1996)가 지속되는 것 역시 이러한 문화적 지체(cultural lag; Triandis, 1994), 혹은 보수적 지체(conservative lag; Miller & Prentice, 1994)의 한 예로 볼 수 있다(Cohen, 2001). 위와 같은 다수의 무지와 보수적 지체 관련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에 기초하여, 한국 문화에서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지각되는 가치들은 실제 자기 중요도가 높은 가치들에 비하여 보다 전통적인 관점과 일관될 것으로, 즉 상대적으로 더 집단주의적이고 덜 개인주의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간의 차이는 독립성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크게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독특성에 대한 선호와 독립성

독특성을 선호하는 것이 독립성과 관련되는가? Kim과 Markus(1999)는, 독립적인 자기관(independent views of self)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자질들에 기초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독특한 존재로 간주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처럼 남들과 다르고자 하는 동기는 상호의존성을 가치 있게 여겨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에게서는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Kim과 Markus(1999)는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럽계 미국인들과 중국계 미국인들(연구 1) 및 한국인들(연구 2)에게 일련의 추상적인 도형자극들을 제시하고, 각 도형자극을 구성하는 하위도형들(subfigures)을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순위 매기도록 하였다. 이때 각 도형자극을 구성하는 하위도형들 가운데 일부는 독특하게, 즉 전체의 조화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유럽계 미국인들은 중국계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에 비하여 독특한 하위도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배경에 따른 독특성 선호에서의 차이는, 위와 같은 추상적인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선택 행동에서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간단한 질문지 연구에 참여한 후 감사의 표시로 마련된 다섯 자루의 펜(그 중 한두 자루는 나머지와 다른 색이었다)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했을 때, 70% 이상의 유럽계 미국인들이 독특한 펜, 즉 나머지와는 색이 다른 펜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인들 가운데에서는 단지 30% 미만만이 독특한 펜을 선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연구 3). 독립적일수록 독특성을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은, 1880년에서 2007년 사이 미국에서 개인주의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점차 더 독특한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음을 보인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었다(Twenge, Abebe, & Campbell, 2010).

Kim과 Sherman(2008)은 독특한 대상을 선호하는 정도가 개인이 독립성의 가치를 옹호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암묵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지 보다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들은 선행 연구(Kim & Markus, 1999)에서 사용되었던 추상적인 도형자극들을 이용하여, 독특성 선호도를 측정하는 '그림 독립성 척도(Figure Independence Scale; FIS)'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FIS에 대한 응답이 독립성의 가치를 드러내는 다른 심리적 지표들, 즉 명시적인 독립성 척도에 대한 응답, 개인적 통제의 욕구(need for personal control), 광고에 표현된 독립성 주제에 대한 선호 및 사회적 지지의 사용과 연관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척도 타당화 과정에서 Kim과 Sherman(2008)은, FIS가 비교문화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문화 내 연구에서 독립성의 가치를 옹호하는 정도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데에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만약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아질수록 독립성이 고양되며, 독립성의 가치를 옹호할수록 독특성에 대한 선호가 강해진다면,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독특성을 더욱 선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일련의 연구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한다.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방식에 있어 미

국 내 지역 간 변산을 살펴보았던 Varnum과 Kitayama(2011)는, 동부 지역에 비하여 서부 지역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흔한 이름을 덜 지어준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자발적 정착 가설은 최초 정착지였던 동부에서 추가로 지리적인 이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후손인 서부 거주자들이, 동부 거주자들에 비하여 더 독립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름을 짓는 방식에 있어서 지역 간 차이는 자발적 정착 가설과 일관되며, 더 나아가 독립적인 기풍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독특성이 더욱 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흔한 이름이 동부에서보다 서부에서 덜 빈번하게 사용되는 패턴은 동부에서 서부로 점진적인 이주와 정착이 이루어졌었던 캐나다에서도 관찰되었다. 뿐만 아니라, 흔한 이름은 유럽의 국가들에서보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인들이 정착한 지역(예: 호주)에서 덜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요컨대, 위의 결과들은 지리적 이동 경험이 독특성을 보다 선호하도록 이끌 가능성을 지지한다. 또한, 일본의 47개 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연구에서도 독특한 색상의 펜을 선택하는 비율은 대도시 지역 거주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화되지 않은 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독특한 펜을 유의미하게 덜 선택하였다(Yamagishi, Hashimoto, Li, & Schug, 2012). 연구자들은 공동체의 규범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도시 거주자들이 전통적인 지역 사회의 거주자들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독특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주거 유동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낮은 지역에 비하여 공동체의 규범이 개인을 구속하는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Oishi et al., 2009; Oishi, Rothman, et al., 2007), Yamagishi와 동료들의 연구(2012) 역시 지리적 이동 경험이 독특성 선호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지리적 이동과 독립성 및 독특성 선호에 관한 위의 연구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이동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독특성에 대한 선호를 강하게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 목표

본 연구의 주목표는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 맥락에서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이 높은 심리적 독립성과 연관되는지 검증하는 데에 있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 연구들에서 관찰되었던 지리적 이동 효과의 문화적 보편성, 혹은 특수성을 논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연구 1에서는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라 개인주의적 및 집단주의적 가치의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와 실제 자기 중요도 평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한국 문화에서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지각되는 가치들은 실제 자기 중요도가 높은 가치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집단주의적이고 덜 개인주의적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리고 연구 1의 목적에 비추어 보다 중요하게, 위와 같은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간의 차이는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크게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더 나아가 연구 2에서는, 심리적 독립성의 또 다른 지표인 독특성에 대한 선호가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주거 이동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독특성에 대한 선호를 강하게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연 구 1

연구 1에서는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을수록 독립성의 가치를 개인적으로 더욱 옹호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참가자들로 하여금 일련의 가치들이 스스로에게 중요한 정도(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자신의 출신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도(가치의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를 각각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가자들의 주거 이동 경험에 따라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간의 차이가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두 유형의 가치 중요도 간 차이가 크게 관찰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즉,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타인들에 비하여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은 보다 더 중요하게, 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은 보다 덜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연구참가자

서울 소재 4년제 여자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강좌를 수강하는 학부생 114명이 학점 이수 요건 충족을 위하여 연구 1에 참여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의 연령 범위는 만 18-26세, 평균 연령은 20.11세였다(SD = 1.64).

측정도구

Schwartz의 가치 질문지: 자기 참조형

자기 가치 우선순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wartz의 가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에는 총 57개의 가치 항목들이 각각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제시된다. 연구참가자들은 가치 항목들을 모두 읽은 후, 먼저 자신에게 삶의 원칙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여 7로 평정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원칙을 거스르는 가치를 선택하여 -1로 평정하였다. 이후 나머지 가치들 각각이 자기 삶의 원칙으로서 중요한 정도를 7점 척도 상에 평정하였다(0: *중요하지 않다*, 6: *매우 중요하다*). 경험적으로 타당화된 Schwartz의 분류 체계를 따라, 동조, 전통, 자비심, 보편주의, 자기주도성, 자극, 쾌락주의, 성취, 권력 및 안전과 같은 10개의 가치 유형들 각각에 해당하는 가치 항목들의 중요도 평정치를 평균하여 자기 가치 우선순위 분석의 기초로 삼았다. 가치 유형별 항목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전통(.47)과 성취(.55)를 제외한 모든 가치 유형들에 대하여 .60 이상이었다. 구체적으로, 동조 .63, 자비심 .61, 보편주의 .72, 자기주도성 .72, 자극 .76, 쾌락주의 .66, 권력 .73 및 안전 .67이었다.

Schwartz의 가치 질문지: 사회 참조형

사회적 가치 우선순위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wartz의 가치 질문지를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치의 지각된 문화적 중요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Fischer, 2006; Wan, Chiu, Peng, et al., 2007; Wan, Chiu, Tam, et al., 2007)을 참조하여, 연구참가자 출신 지역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가치 우선순위를 보고하도록 과제를 변경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먼저 자신의 출신지를 명시하고, 자기 참조형

질문지에서와 동일한 57개의 가치 항목들 각각이 *자신의 출신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의 원칙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정하였다. 자기 참조형 질문지에서와 같은 순서로, 자신의 출신 지역 사람들의 삶의 원칙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이들의 삶의 원칙에 반하는 가치를 각각 7과 -1로 평정한 후, 나머지 가치들의 중요도를 7점 척도 상에 평정하였다(0: *중요하지 않다*, 6: *매우 중요하다*). 이후, Schwartz의 열 가지 가치 유형별 평균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여 지각된 사회적 가치 우선순위 분석의 기초로 삼았다. 가치 유형별 항목 간 내적합치도는 동조(.58), 전통(.49) 및 안전(.47)을 제외한 모든 가치 유형들에 대하여 .60 이상이었다. 구체적으로, 자비심 .69, 보편주의 .80, 자기주도성 .64, 자극 .68, 쾌락주의 .71, 성취 .75 및 권력 .72였다.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연구참가자들은 성별, 연령 및 거주지 이전 경험(출생 후 거주하였던 지역들과 각 지역에 거주하였던 기간을 연령 기준으로 명시; Lun et al., 2012; Oishi, Krochik, Roth, & Sherman, 2012; Oishi, Lun, et al., 2007; Oishi, Miao, et al., 2012; Oishi & Shimmack, 2010)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부모의 교육 수준과 연간 가계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질문들에도 답하였다. 교육 수준은 다음의 여섯 가지 범주로 측정되었다: (1) 중학교 졸업, (2) 고등학교 졸업, (3) 전문대학 졸업, (4) 4년제 대학교 졸업, (5) 석사학위 취득, 혹은 (6) 박사학위 취득. 연간 가계 소득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범주로 측정되었다: (1) 1천만 원 이하, (2) 1천-3천만 원, (3) 3천-5천만 원, (4) 5천-7천만 원, (5) 7천-9천만 원, (6) 9천만-1억 1천만 원, 혹은 (7) 1억 1천만 원 이상.

측정도구의 번역

Schwartz의 가치 질문지를 연구에 사용하기에 앞서, 영어와 한국어에 능숙한 두 명의 이중언어자들이 각각 한국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역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역번역된 영문판을 원본과 비교하여 둘 간에 의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절차

이 연구는 강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연구참가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예상 소요 시간, 연구참가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측정도구들이 포함된 소책자를 받았다. 자기 참조형 가치 질문지와 사회 참조형 가치 질문지를 작성하는 순서는 연구참가자들에 걸쳐 상쇄평형화되었다. 연구참가자들은 가치 질문지들을 작성한 후, 성별, 연령, 거주지 이전 경험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지에 답하였다. 소책자에는 측정도구 사이마다 5~10분가량 소요되는 무관 과제들(filler tasks)이 삽입되어 있었고, 과제 작성에 별도의 시간 제한은 없었다. 참가자들은 연구 종료 1주 후 연구의 내용에 대한 사후설명을 들었다.

결과 및 논의

거주지 이전 경험

거주지 이전 경험에 관한 연구참가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이주 횟수를 계산하였다. 주

거 유동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만 5세 전에는 지속적인 동료 관계와 집단 소속을 가지거나 명확한 집단적 자기개념을 형성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거주지 이전 횟수 계산 시에 만 5세 전의 이주 경험을 제외시킨 바 있었다(e.g., Oishi, Lun, et al., 2007). 이 선행 연구들을 따라, 본 연구에서도 만 5세 이후의 거주지 이전 횟수만을 계산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의 이주 횟수는 0회에서 4회의 범위에 있었다(M = 1.09, SD = 1.06, *Skewness* = .82). 구체적으로, 40명의 연구참가자들(35.1%)은 이사 경험이 없었으며, 40명(35.1%)은 1회, 21명(18.4%)은 2회, 10명(8.8%)은 3회, 3명(2.6%)은 4회의 거주지 이전 경험이 있었다.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 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자기 가치 우선순위, 즉 개인의 가치 위계 내에서 각 가치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기 가치 중요도 평정치들을 중심화(centering)하였다(Fischer, 2004, 2006). 먼저 각 연구참가자의 모든 자기 가치 중요도 평정치들의 평균을 구하였다. 그 다음, 이 가치 중요도 평정 평균을 각각의 가치 중요도 원점수에서 뺀 차이점수를 구하였다. 이 차이점수들을 Schwartz의 분류 체계에 따라 평균하여 연구참가자마다 10개의 가치 유형들 각각의 실제 자기 중요도 점수를 얻었다. 마찬가지로 지각된 사회적 가치 우선순위, 즉 지각된 사회적 가치 위계 내에서 각 가치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중요도 평정치들을 중심화하였다. 이후, 중심화된 점수들을 Schwartz의 분류 체계에 따라 평균하여 연구참가자마다 10개의 가치 유형들 각각의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점수를 얻었다. 사전분석에서 평정 순서의 효과, 즉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중 어느 쪽을 먼저 평정하였는가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사전분석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변수들을 공변량(covariate)으로 포함시켰을 때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에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하지 않은 원점수들을 보고하였다.

거주지 이전 경험과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 및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가치 유형에 따라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기주도성($M_{자기}$ = .46, $SD_{자기}$ = .88 vs. $M_{사회}$ = -.27, $SD_{사회}$ = .87; p < .001), 자극($M_{자기}$ = -.59, $SD_{자기}$ = 1.27 vs. $M_{사회}$ = -1.15, $SD_{사회}$ = 1.32; p = .001) 및 쾌락주의($M_{자기}$ = 1.20, $SD_{자기}$ = 1.16 vs. $M_{사회}$ = .38, $SD_{사회}$ = 1.30; p < .001)에 대해서는 실제 자기 중요도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조($M_{자기}$ = -.42, $SD_{자기}$ = .85 vs. $M_{사회}$ = -.01, $SD_{사회}$ = 1.03; p = .001), 전통($M_{자기}$ = -1.49, $SD_{자기}$ = .81 vs. $M_{사회}$ = -.76, $SD_{사회}$ = .99; p < .001) 및 안전($M_{자기}$ = .17, $SD_{자기}$ = .88 vs. $M_{사회}$ = .71, $SD_{사회}$ = .82; p < .001)에 대해서는 실제 자기 중요도에 비하여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자기주도성, 자극 및 쾌락주의와 같이 개인주의 성향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가치들(Oishi, Schimmack, Diener, & Suh, 1998; Schwartz, 1992; Triandis, 1996)에 대해서는 실제 자기 중요도가, 동조, 전통 및 안전 등 집단주의 성향과 관련되는 가치들(Oishi et al., 1998;

Schwartz, 1992; Triandis, 1996)에 대해서는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가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평정되었다. 즉 연구참가자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들의 실제 자기 가치보다 지각된 사회적 가치가 덜 개인주의적이고 더 집단주의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 자신은 집단주의적 가치들보다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을 더 옹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은 여전히 개인주의적 가치들보다 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을 더 옹호할 것으로 지각한다는 결과는, 최근의 연구들(e.g., Zou et al., 2009)과 맥을 같이 한다.

거주지 이전 경험과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 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연구 1의 주요 목표는 거주지 이전 경험이 개인주의적 가치들과 집단주의적 가치들의 실제 자기 중요도 및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는 데에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자신이 더 개인주의적이며 덜 집단주의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지각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성, 자극 및 쾌락과 같은 개인주의적 가치들의 실제 자기 중요도 평균과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평균, 그리고 동조, 전통 및 안전과 같은 집단주의적 가치들의 실제 자기 중요도 평균과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평균을 각각 구하였다. 이후, 일반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가치의 성격(개인주의적 vs. 집단주의적)과 가치 중요도의 종류(실제 자기 중요도 vs.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를 연구참가자 내 요인으로, 거주지 이전 횟수를 연구참가자 간 요인으로, 그리고 위에서 계산한 가치 중요도의 평균점수들을 종속변수로 하는 혼합모형에 대한 반복측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으로부터 첫째,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의 중요도(M = .00, SD = .61)가 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의 중요도(M = -.30, SD = .4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1, 112) = 6.34$, $p < .025$, $\eta_p^2 = .05$. 또한, 가치의 성격과 가치 중요도의 종류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었다, $F(1, 112) = 7.11$, $p < .01$, $\eta_p^2 = .06$. 즉, 가치 유형별 분석에서 알 수 있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연구참가자들은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M = -.35, SD = .93)에 비하여 자신(M = .36, SD = .83)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하였다, $t(113) = 5.84$, $p < .001$. 그러나 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의 경우 자신(M = -.58, SD = .55)보다 다른 사람들(M = -.02, SD = .67)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하였다, $t(113) = 6.73$, $p < .001$. 더 나아가, 본 연구의 목표에 비추어 가장 중요하게, 가치의 성격, 가치 중요도의 종류, 그리고 거주지 이전 횟수 사이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F(1, 112) = 7.79$, $p < .01$, $\eta_p^2 = .07$.[1] 이 삼원 상호작용을 자세하게 검

1) 거주지 이전 경험을 이분변수로 간주하여 가치의 성격(개인주의적 vs. 집단주의적)과 가치 중요도의 종류(실제 자기 중요도 vs.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를 연구참가자 내 요인, 그리고 거주지 이전 경험(있음 vs. 없음)을 연구참가자 간 요인으로 하는 혼합모형 변량분석(mixed ANOVA)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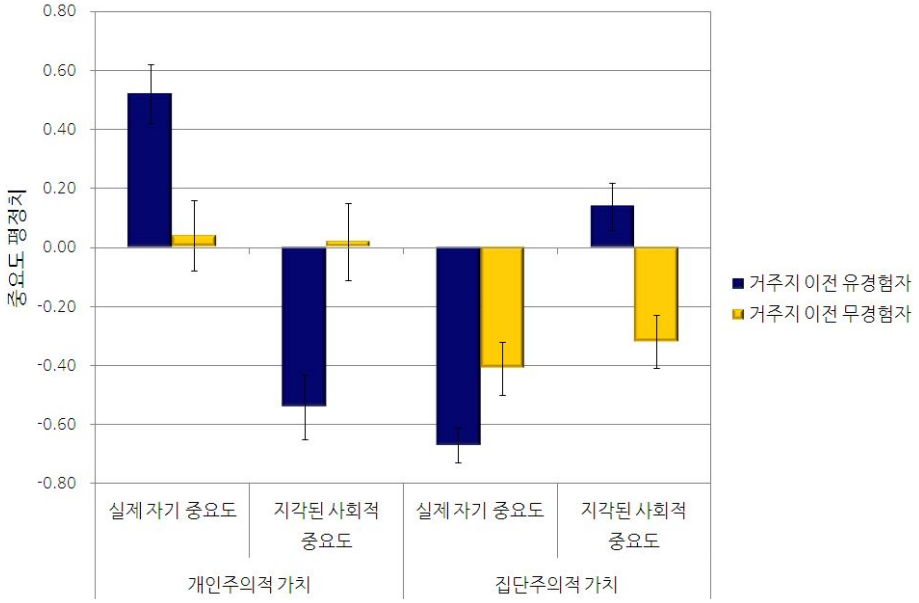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1: 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른 개인주의적 가치들과 집단주의적 가치들의 실제 자기 중요도 및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 평정(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거주지 이전 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그러나 실제 분석에서는 집단의 임의적 구분 없이 거주지 이전 횟수를 연속변수로 고려하였다.)

증하고 시각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거주지 이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n = 74)과 거주지 이전 경험이 없는 사람들(n = 40)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1은 거주지 이전 경험자들과 거주지 이전 미경험자들이 평정한 개인주의적인 가치들 및 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를 각각 제시한 것이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주지 이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을 다른 사람들(M = -.54, SD = .92)에 비하여 자신(M = .52, SD = .84)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하였다, $t(73)$ = 7.25, p < .001. 그러나 거주지 이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평정한 개인주의적 가치들의 실제 자기 중요도(M = .04, SD = .74)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M = .02, SD = .85)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t(39)$ = .16, *n.s.* 반면, 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의 경우, 거주지 이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M = -.67, SD = .51)에 비하여 다른 사람들(M = .14, SD = .68)이 주어진 가치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하였다, $t(73)$ = 8.11, p < .001. 그러나 거주지 이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평정한 집단주의적 가치들의 실제 자기 중요도(M = -.41, SD = .59)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M = -.32, SD = .55) 간에는 이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도, 거주지 이전 횟수를 연속변수로 분석에 포함시켰을 때와 일관되게 가치의 성격, 가치 중요도의 종류 및 거주지 이전 경험 간에 뚜렷한 삼원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었다, $F(1, 112) = 22.16$, $p < .001$, $\eta_p^2 = .17$.

러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t(39) = .81$, *n.s.*

요컨대, 연구 1을 통하여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개인주의적 가치들의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에 비하여 실제 자기 중요도를 높게 평정하며, 집단주의적 가치들의 실제 자기 중요도에 비하여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를 높게 평정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 이동을 빈번하게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은 다른 이들에 비하여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나, 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은 다른 이들에 비하여 자신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지각하리라는 연구 1의 가설과 일관된 것이다.

연 구 2

연구 2에서는 거주지 이전 경험이 심리적 독립성의 다른 지표인 독특성 선호와도 체계적으로 관련되는지 알아봄으로써 연구 1의 결과를 보다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특성 선호의 개인차를 측정하도록 고안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을수록 측정된 독특성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최근의 연구(Stephens, Markus, & Townsend, 2007)에서 독특성 선호가 사회계층(social class)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연구 2에서는 사회계층이 거주지 이전 경험을 넘어서서 독특성에 대한 선호의 변산을 설명할 수 있는지도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참가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64명(남자 35명, 여자 29명)이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이 연구를 포함한 일련의 연구들에 참여하고 5,000원의 사례를 받았다. 연구참가자들의 연령 범위는 만 18-27세, 평균 연령은 20.95세였다(SD = 2.02).

측정도구

그림 독립성 척도

독특성을 선호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IS(Kim & Markus, 1999; Kim & Sherman, 2008)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9개의 하위도형들로 구성된 30개의 추상적인 도형자극들이 제시된다. 이 도형자극들은 다음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30개 가운데 17개 도형자극들의 경우, 각 도형자극을 구성하는 9개의 하위도형들 중 한 개의 하위도형만이 모양, 방향, 무늬, 혹은 위치에 있어 나머지 하위도형들과 다르다. '독특한' 하위도형은 이와 같이 각 도형자극 내에서 나머지 8개의 하위도형들과 모양, 방향, 무늬, 혹은 위치를 달리하는 하나의 하위도형을 지칭한다. 둘째, 30개 중 12개의 도형자극들에는 나머지와 다른 하위도형들이 2개, 3개, 혹은 4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하위도형들을 '복수의 소수(plural minority)' 하위도형들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개의 도형자극은 '독특한' 하위도형이나 '복수의 소수' 하위도형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무관 항목(filler item)이다. 연구참가자들은 각 도형자극을 구성하는 9개의 하위도형들에 대하여 선호도에 따라 1(*가장 좋아하는*)에서

9(*가장 덜 좋아하는*)까지 순위를 부여하라는 지시문을 받았다. 지시문 뒤에는 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의 예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는 도형자극 제시 순서가 상쇄평형화된 두 버전의 척도가 사용되었다.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연구 1에서와 같이 연구참가자들은 성별, 연령 및 거주지 이전 경험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부모의 교육 수준과 연간 가계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질문들에도 답하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연구 1에서와 동일한 범주들로 측정되었으며, 연간 가계 소득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범주로 측정되었다: (1) 2천만 원 이하, (2) 2천-4천만 원, (3) 4천-6천만 원, (4) 6천-8천만 원, (5) 8천만-1억 원, (6) 1억-1억 2천만 원, 혹은 (7) 1억 2천만 원 이상.

절차

연구 2의 실험 회기는 개인별로 진행되거나 2명에서 7명까지의 소집단으로 진행되었다. 소집단으로 진행되었던 실험 회기에서는, 다른 연구참가자들로 인한 주의 분산을 막기 위하여 연구참가자들을 한 명씩 칸막이로 분리된 공간에 앉도록 하였다. 이후 연구참가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예상 소요 시간, 연구참가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측정도구들이 포함된 소책자를 받았다. 연구참가자들은 그림 독립성 척도와 인구통계학적 질문지의 순으로 답하였다. 과제 작성에 별도의 시간 제한은 없었다. 연구참가자들은 실험 회기 종료 후 연구의 내용에 대한 사후설명을 들었다.

결과 및 논의

거주지 이전 경험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참가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만 5세 이후의 이주 횟수를 계산하였다. 연구 2 참가자들의 이주 횟수는 0회에서 5회의 범위에 있었다(M = 2.03, SD = 1.27, *Skewness* = .56). 구체적으로, 네 명의 연구참가자들(6.3%)은 이사 경험이 없었으며, 23명(35.9%)은 1회, 17명(26.6%)은 2회, 9명(14.1%)은 3회, 9명(14.1%)은 4회, 그리고 2명(3.1%)은 5회 거주지를 옮긴 경험이 있었다.

사회경제적 지위

먼저, 교육 수준 범주들에 1에서부터 6까지의 숫자를 부여하여 숫자가 커질수록 교육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교육 수준의 중앙값(median)은 부와 모의 경우 모두 대학교 졸업이었다. 연간 가계 소득 범주들에 대해서도 숫자가 커질수록 소득이 높아짐을 나타내도록 1에서부터 7까지의 숫자를 부여하였다. 연간 가계 소득의 중앙값은 4천-6천만 원이었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종합점수(composite scores)를 산출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e.g., Kraus, Piff, & Keltner, 2009)에서와 같이 부의 교육 수준, 모의 교육 수준, 그리고 연간 가계 소득 점수를 각각 표준화한 후 합산하였다(Cronbach's alpha = .64). 부의 교육 수준, 모의 교육 수준, 연간 가계 소득 및 사회경제적 지위 종합점수 가운데 어떠한 변수도 거주지 이전 횟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10 < *r*s < -.05, 모두 *n.s.*).

독특성 선호와 거주지 이전 경험 및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

분석에 앞서, 연구참가자들이 각 도형자극에 포함된 9개의 하위도형들에 매긴 순위를 역채점하여 숫자가 커질수록 호감도가 상승하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이후, '독특한' 하위도형이 포함되어 있는 17개의 도형자극들에서 '독특한' 하위도형에 부여된 선호 점수들을 평균하였다. '복수의 소수' 하위도형들에 대한 선호 점수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Kim과 Markus(1999)가 제안한 바와 같이 척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였다. 즉, FIS를 작성할 때 연구참가자들은 동일한 숫자를 두 번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로 인하여 '복수의 소수' 하위도형들에 대한 선호 점수를 산출할 때에는 척도의 범위가 축소된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참가자가 주어진 도형자극 속에 포함된 '복수의 소수' 하위도형들 3개를 동일한 정도로 선호한다고 할지라도, 이 연구참가자가 그 세 하위도형들에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순위는 1, 2 및 3이다. 그러므로 '복수의 소수' 하위도형들이 한 도형자극 안에 3개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가능한 선호 점수의 범위는 1에서 9까지가 아닌, 2에서 8까지가 된다. 따라서 '복수의 소수' 하위도형들에 대한 선호 점수를 계산할 때 가능한 점수 범위가 1에서 9까지가 되도록 척도를 선형변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계산된 '독특한' 하위도형 선호 점수와 '복수의 소수' 하위도형 선호 점수를 독특성 선호 경향의 두 가지 지표로 사용하였다.[2] 사전분석에서 그림 독립성 척도의 두 버전, 즉 도형자극 제시 순서가 상쇄평형화된 두 버전 간에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연구 2의 주요 가설은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독특성에 대한 선호를 강하게 보이리라는 것이었다. 연구 2에서는 또한,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거주지 이전 경험을 넘어서서 독특성에 대한 선호를 예측할 수 있는지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선형모형을 이용하여 하위도형의 종류('독특한' vs. '복수의 소수')를 연구참가자 내 요인, 거주지 이전 횟수와 사회경제적 지위 종합점수를 연구참가자 간 요인으로 하는 혼합모형에 대한 반복측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하위도형에 대한 선호도로, 위에서 기술한 방법대로 계산되었다.

먼저, 연구참가자들은 '독특한' 하위도형들(M = 5.08, SD = 2.26)에 비하여 '복수의 소수' 하위도형들(M = 5.18, SD = 1.17)을 전반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60) = 7.41$, $p < .01$, $\eta_p^2 = .11$.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보다 중요하게, 거주지 이전 횟수는 독특성에 대한 선호를 유의미하게 예

2) Kim과 Sherman(2008)에서는 간결성을 위하여 '독특한' 하위도형들에 대한 응답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Kim과 Markus(1999)에서는 '복수의 소수' 하위도형들에 대한 응답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독특한' 하위도형들의 경우보다 그 차이는 덜 두드러졌을지라도,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보다 '복수의 소수' 하위도형들 역시 더 선호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복수의 소수' 하위도형들에 대한 응답을 독특성 선호의 지표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Kim과 Markus(1999)에 기초하여, 거주지 이전 경험의 효과가 '복수의 소수' 하위도형들에 대한 선호에 비하여 '독특한' 하위도형들에 대한 선호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측함을 알 수 있었다, $F(1, 60) = 9.69$, $p < .005$, $\eta_p^2 = .14$. 즉 가설과 일관되게,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독특성에 대한 선호를 강하게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하위도형 종류와 거주지 이전 횟수 간의 상호작용도 관찰되었다, $F(1, 60) = 8.19$, $p < .01$, $\eta_p^2 = .12$. 이 상호작용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거주지 이전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거주지 이전 2회 이상; $n = 37$)과 적은 사람들(거주지 이전 경험이 없거나 1회; $n = 27$)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특한' 하위도형들에 대해서는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연구참가자들($M = 5.69$, $SD = 2.28$)이 거주지 이전 경험이 적은 연구참가자들($M = 4.27$, $SD = 2.00$)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강한 선호를 보였다, $t(61) = 2.57$, $p < .025$, Cohen's $d = .66$. 또한 '복수의 소수' 하위도형들 역시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연구참가자들($M = 5.46$, $SD = 1.14$)이 거주지 이전 경험이 적은 연구참가자들($M = 4.80$, $SD = 1.1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였으나, 이 집단 간 선호 차이는 '독특한' 하위도형들의 경우에 비하여 작았다, $t(61) = 2.30$, $p = .025$, Cohen's $d = .59$.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 주효과 및 하위도형 종류와의 상호작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각각 $F(1, 60) = 1.43$, *n.s.*와 $F(1, 60) = 3.49$, $p > .05$.

연구 2의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닌 거주지 이전 경험만이 독특성에 대한 선호를 유의미하게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선행 연구(Kim & Markus, 1999)를 토대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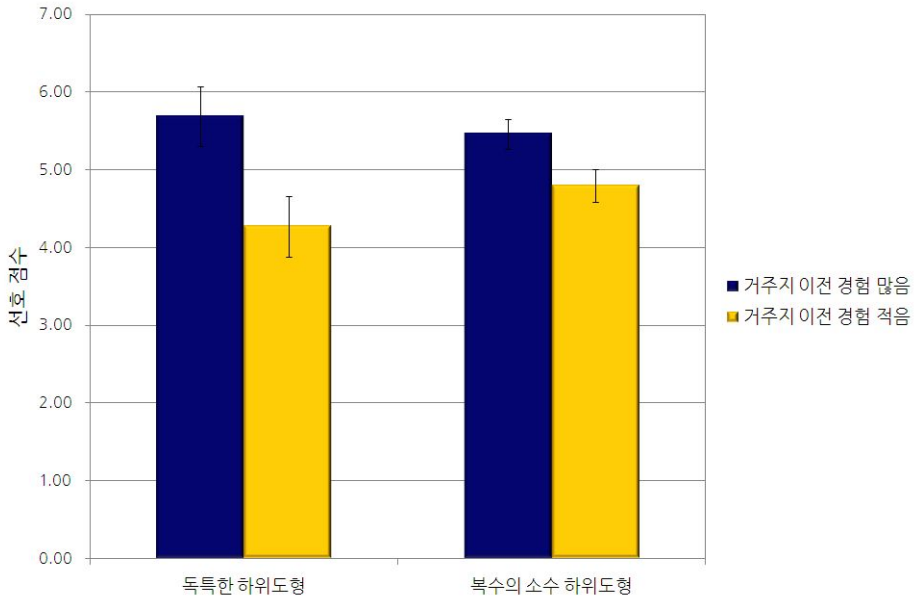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2: 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른 독특한 하위도형과 복수의 하위도형 선호도(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거주지 이전 횟수를 기준으로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을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그러나 실제 분석에서는 집단의 임의적 구분 없이 거주지 이전 횟수를 연속변수로 고려하였다.)

할 수 있었던 바와 일관되게, 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른 차이는 '복수의 소수' 하위도형들에 대한 선호에서보다 '독특한' 하위도형들에 대한 선호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요컨대, 연구 2의 결과는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독특성을 더욱 강하게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종합논의

이 연구의 주목표는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이 높은 심리적 독립성과 연관되는지 검증하는 데에 있었다. 이를 통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관찰되었던 지리적 이동 효과가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적이거나 특수적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독립성의 가치를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더욱 옹호한다고 지각하는지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가치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독특성 선호에 있어서도 주거 이동 경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데에 있었다. 일련의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독특성 선호가 독립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맥락이나 개인들에게서 관찰되는 심리적 징표임이 밝혀진 바 있었으나(Kim & Markus, 1999; Kim & Sherman, 2008), 이제까지 주거 이동 경험이 증가할수록 독특성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는지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빈번하게 주거 이동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일수록 독특성에 대한 선호를 강하게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표들을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 1에서는 실제 자기 중요도가 높게 평정된 가치들이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지각되는 가치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개인주의적이고 덜 집단주의적인 것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연구 1의 목표를 고려하였을 때 보다 중요하게, 거주지 이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위와 같은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와 지각된 중요도 간의 차이를 크게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하였다. 둘째, 연구 2에서는 심리적 독립성의 또 다른 지표인 독특성 선호가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주거 이동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독특성을 더욱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 이동 경험에 따른 독특성 선호의 차이는, 선행 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일관되게 '복수의 소수' 하위도형들에서보다 '독특한' 하위도형들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주의적인 문화 배경에서도 개인의 지리적 이동 경험은 높은 심리적 독립성과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문화심리학 내에서 지리적 이동과 심리적 독립성이 양방향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e.g., Kitayama et al., 2006).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이전 경험과 심리적 독립성의 관계에서 영향의 방향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가진다. 즉, 본 연구는 지리적 이동을 빈번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애초부터 보다 독립적인 것인지(자기 선발; 지리적 이동과 성격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Jokela, 2009 참조), 역으로 거주지 이전 경험이 사람들을 보다 독립적으로 만드는지(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독립성 강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함의를 가진다. 그런데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본 연구의 결과는 후자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인과관계에서 통상 원인은 효과에 시간적으로 선행한다(Cook & Campbell, 1979).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변수들 가운데 거주지 이전 경험은 현재 독립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나 독특성을 선호하는 정도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다. 둘째, 자기 선발이 지리적 이동과 높은 독립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리적 이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를 따라 거주지를 옮겼던 것이므로, 이들의 지리적 이동에 자발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주 과정에서의 독립성 강화 가능성을 보다 엄정하게 검증(conservative test)할 수 있었다. 즉, 대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의 이사 경험을 포착함으로써, 자발적이지 않은 지리적 이동을 통해서도 독립성이 강화되는지 검증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연구참가자들의 성장기 거주지 이전 경험과 성인기 자아개념 및 행복 경험이 연관되어 있으며(Oishi, Lun, et al., 2007), 주거 이동을 생각하도록 하였을 때 불안이 증가하고 외로움을 크게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사회관계망을 확장하려는 동기가 상승한다는 것을 보였던 선행 연구들(Oishi, Miao, et al., 2012; Oishi et al., 2013)과 더불어, 주거 이동이 개인 수준에서 심리적 독립성을 유발하거나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인과의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주거 유동성을 실험적으로 조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종단적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주거 이동에 따른 심리적 독립성 강화를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거 이동이 어떤 기제를 통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주거 이동 이후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면, 개인들은 이전 거주지에서 유지했었던 사회관계망에 온전히 의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전 거주지에서 통용되었던 암묵적 사회 관습이 새로운 환경에서 항상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응을 위해 개인이 주도적으로 환경을 탐색하며 새로운 사회관계망 구축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이 결과적으로 개인의 독립성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노력이 주거 이동과 독립성 강화 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매개효과의 가능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관찰되었던 주거 이동의 효과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주거 이동을 했었던 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일반화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다양한 개인적, 혹은 상황적 요인들로 인하여 거주지를 옮겨 다녔다. 따라서 자발적인 이사와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은 이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이 세대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높다. 즉, 한국에서 주거 이동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었는지를 고려하여, 한국 사회에 고유한 주거 이동 경험이 어떠한 심리적 결과를 낳는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2의 결과를 최근 발표된 거주지 이전 경험 관련 연구와 함께 고려하면 여러 후속 연구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Oishi, Miao 등(2012)은 미국 내에서 이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친숙하지 않은 점포들보다 전국 체인망을 갖춘 친숙한 점포들을 선호한다는 것을 밝혔다. 더 나아가 뒤섞인 문장 과제(scrambled sentence task) 등을 이용하여 주거 유동성 마인드셋을 점화하였을 때 단순 노출 효과(혹은 친숙성 선호 효과)가 강화된다는 것을 관찰하였고, 유동성에서 유발된 불안이 유동성과 친숙성 선호 간의 관계를 매개함을 보였다. 이처럼 개인의 실제 주거 이동 경험, 그리고 주거 유동성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친숙한 대상을 보다 선호하도록 만든다는 결과는, 거주지 이전 경험이 증가할수록 독특성 선호가 강해진다는 것을 보인 본 연구 2의 결과와 일견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Oishi, Miao 등의 연구는, '독립적인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평균 이상 효과를 크게 보인다,' 즉 '독립적인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독특성을 크게 지각한다'는 여러 선행 연구들(개관을 위해서는 Heine & Hamamura, 2007; 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참조)이 시사하는 바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가적인 경험적 연구 없이는 본 연구 및 문화와 평균 이상 효과 관련 연구들과 Oishi, Miao 등의 연구가 상반된 결과를 보인 이유를 완전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차이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다각도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Oishi, Miao 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인들에게 주거 유동성을 점화하였을 때, 독특성에 대한 선호도 및 단순 노출 효과의 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주거 이동은 인지적 자원을 고갈시킬 가능성이 있다(Oishi & Talhelm, 2012). 만약 그렇다면, 인지적 자원과 그에 따른 자기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과제(예컨대, Oishi, Miao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전국 체인망을 갖춘 Starbucks와 California 지역에만 있어 이들의 연구에 참여하였던 동부의 대학생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았을 Malibou 중 어느 곳의 커피를 선호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인지적 노력을 절약해주는 대안, 즉 친숙한 대안을 선호할 수 있다. 이처럼 주거 이동으로 인한 친숙성 선호 효과가 과제 특수적, 혹은 상황 특수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지적 노력을 크게 요구하는 과제와 적게 요구하는 과제를 함께 사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 유동성과 독특성, 혹은 친숙성 선호의 관계를 성격 변수들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주거 이동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불안 및 외로움과, 장기적으로는 낮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 및 성인기의 높은 사망률과 관련된다(Oishi & Talhelm, 2012). 그런데 어린 시절의 이사 경험과 성인기 조기 사망 가능성의 관계는 외향성에 의하여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Oishi & Schimmack, 2010). 즉, 유년기의 거주지 이전 경험은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높은 조기 사망 가능성과 관련되었지만,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위에서 개관한 일련의 선행 연구들로 미루어, 외향성이나 경험에의 개

방성이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이사 경험이 많을수록 독특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반면,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주거 이동 경험이 많을수록 친숙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다 두드러질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주 경험, 독특성 및 친숙성에 대한 선호와 더불어 성격 변수들을 측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답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하건대, 이 연구를 통하여 집단주의 문화 맥락에서도 지리적 이동은 개인 수준에서의 높은 심리적 독립성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이었던 사회, 혹은 문화가 점차 개인주의적으로 변모해가는 추세(Hamamura, 2012)를 설명할 단초를 제공한다. 즉, 급속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거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회관계를 만들어야 했을 것이다. 이처럼, 빈번한 주거 이동은 개인들을 보다 독립적이 되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 수준에서도 독립성이 장려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을 것이다. 향후 주거 유동성과 문화의 변화 간의 관계를 보다 본격적으로 탐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통계청 (n.d.). 국내인구이동통계. Retrieved April 8, 2013, from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1013&stts_cd=101301&clas_div=&idx_sys_cd=&idx_clas_cd=1

Cohen, D. (2001). Cultural variation: Considerations and implic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27*, 451-471.

Cook, T. D., & Campbell, D. T. (1979). *Quasi-experimentation: Design and analysis for field settings*. Chicago, IL: Rand McNally.

Edgerton, R. B. (1965). “Cultural” vs. “ecological” factors in the expression of values, attitude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merican Anthropologist*, *67*, 442-447.

Edgerton, R. B. (1971). *The individual in cultural adaptation: A study of four East African peopl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ischer, R. (2004). Standardization to account for cross-cultural response bias: A classification of score adjustment procedures and review of research in JCCP.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 263-282.

Fischer, R. (2006). Congruence and functions of personal and cultural values: Do my values reflect my culture's val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1419-1431.

Goldschmidt, W. (1971). Independence as an element in pastoral social systems. *Anthropological Quarterly*, *44*, 132-142.

Hamamura, T. (2012). Are cultures becoming individualistic? A cross-temporal comparison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 3-24.

Heine, S. J., & Hamamura, T. (2007). In search of East Asian self-enhanc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 4-27.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 766-794.

Hirai, M. (1999). Stereotypes about the Japanese: Differences in evaluations between "the Japanese" and "myself." *Japane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 103-113.

Jokela, M. (2009). Personality predicts migration within and between U.S. stat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 79-83.

Kim, H., & Markus, H. R. (1999). Deviance or uniqueness, harmony or conformity? A cultur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785-800.

Kim, H. S., & Sherman, D. K. (2008). What do we see in a tilted square? A validation of the Figure Independence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47-60.

Kitayama, S., Bowman, N. A. (2009). Cultural consequences of voluntary settlement in the frontier: Evidence and implications. In M. Schaller, A. Norenzayan, S. J. Heine, T. Yamagishi, & T. Kameda (Eds.), *Evolution, culture, and the human mind* (pp.205-227).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Kitayama, S., Conway, L. G., Pietromonaco, P. R., Park, H., & Plaut, V. C. (2010). Ethos of independence across reg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production-adoption model of cultural change. *American Psychologist*, *65*, 559-574.

Kitayama, S., Ishii, K., Imada, T., Takemura, K., & Ramaswamy, J. (2006). Voluntary settlement and the spirit of independence: Evidence from Japan's "northern fronti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369-384.

Kitayama, S., Park, H., Sevincer, A. T., Karasawa, M., & Uskul, A. K. (2009). A cultural task analysis of implicit independence: Comparing North America, Western Europe, and East Asi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236-255.

Kraus, M. W., Piff, P. K., & Keltner, D. (2009). Social class, sense of control, and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992-1004.

Lun, J., Oishi, S., & Tenney, E. R. (2012). Residential mobility moderates preferences for egalitarian versus loyal help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 291-297.

Miller, D. T., & Prentice, D. A. (1994). Collective errors and errors about the collect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41-550.

Nisbett, R. E., & Cohen, D. (1996). *Culture of honor: The psychology of violence in the South*. Boulder, CO: Westview Press.

Oishi, S. (2010). The psychology of residential mobility: Implications for the self, social relationships, and well-being.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 5-21.

Oishi, S., Ishii, K., & Lun, J. (2009). Residential mobility and conditionality of group ident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 913-919.

Oishi, S., Kesebir, S., Miao, F. F., Talhelm, T., Endo, Y., Uchida, Y., et al. (2013). Residential mobility increases motivation to expand social network: But wh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 217-223.

Oishi, S., Krochik, M., Roth, D., & Sherman, G. D. (2012). Residential mobility, personality,

and subjective and physical well-being: An analysis of cortisol secretion.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3*, 153-161.

Oishi, S., Lun, J., & Sherman, G. D. (2007). Residential mobility, self-concept, and positive affect in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131-141.

Oishi, S., Miao, F. F., Koo, M., Kisling, J., & Ratliff, K. A. (2012). Residential mobility breeds familiarity-see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 149-162.

Oishi, S., Rothman, A. J., Snyder, M., Su, J., Zehm, K., Hertel, A. W., et al. (2007). The socioecological model of procommunity action: The benefits of residential st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831-844.

Oishi, S., & Schimmack, U. (2010). Residential mobility, well-being, and mort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 980-994.

Oishi, S., Schimmack, U., Diener, E., & Suh, E. M. (1998). The measurement of values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1177-1189.

Oishi, S., & Talhelm, T. (2012). Residential mobility: What psychological research reveal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1*, 425-430.

Prentice, D. A., & Miller, D. T. (1993). Pluralistic ignorance and alcohol use on campus: Some consequences of misperceiving the social nor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243-256.

Rohan, M. J. (2000). A rose by any name? The values constru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 255-277.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5, pp.1-65). New York, NY: Academic Press.

Sevincer, A. T., Park, H., & Kitayama, S. (2009). [Settlement and implicit independence: Comparing in-state and out-of-state students in a German university]. Unpublished data, University of Hamburg.

Stephens, N. M., Markus, H. R., & Townsend, S. S. M. (2007). Choice as an act of meaning: The case of social cla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814-830.

Terracciano, A., Abdel-Khalek, A. M., Adam, N., Adamovova, L., Ahn, C.-k., Ahn, H.-n., et al. (2005). National character does not reflect mean personality trait levels in 49 cultures. *Science*, *310*, 96-100.

Triandis, H. C. (1994). *Culture and social behavior*. New York, NY: McGraw-Hill.

Triandis, H. C. (1996). The psychological measurement of cultural syndrome. *American Psychologist*, *51*, 407-415.

Twenge, J. M., Abebe, E. M., & Campbell, W. K. (2010). Fitting in or standing out: Trends in American parents' choices for children's names, 1880-2007.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 19-25.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09).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nt stock: The 2008 revision* (United Nations database, POP/DB/MIG/Stock/Rev.2008).

Varnum, M. E. W., & Kitayama, S. (2011). What's in a name? Popular names are less common on frontiers. *Psychological Science*, *22*, 176-183.

Wan, C., Chiu, C.-Y., Peng, S., & Tam, K.-P. (2007). Measuring cultures through intersubjective cultural norms: Implications for predicting relative identification with two or more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8*, 213-226.

Wan, C., Chiu, C.-Y., Tam, K.-P., Lee, S.-L., Lau, I. Y.-M., & Peng, S. (2007). Perceived cultural importance and actual self-importance of values in cultur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337-354.

Yamagishi, T., Hashimoto, H., Li, Y., & Schug, J. (2012). Stadtluft macht frei (City air brings freedo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3*, 38-45.

Zou, X., Tam, K.-P., Morris, M. W., Lee, S.-L., Lau, I. Y.-M., & Chiu, C.-Y. (2009). Culture as common sense: Perceived consensus versus personal beliefs as mechanisms of cultural influ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579-597.

논문 투고일 : 2013. 04. 09
1 차 심사일 : 2013. 04. 22
게재 확정일 : 2013. 05. 27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3, Vol. 19, No. 2, 179~202.

The Relation among Residential Mobility, Values of Independence, and Preference for Uniqueness

Hyeky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 history of residential moves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In particular, this research tested how actual self-importance (vis-a-vis perceived social importance) of values (Study 1) and preference for uniqueness (Study 2) would vary as a function of past experience of moving. The results showed that personal history of residential moves was positively linked to actual self-importance of individualistic values and perceived social importance of collectivistic values. In addition,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individuals with frequent residential moves generally showed a greater liking for uniquenes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for the direction of causation between residential mobility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made.

Key words : residential mobility, values, actual self-importance, perceived social importance, preference for uniqueness